

매일묵상일기

가정예배

매일묵상일기 · 가정예배자료

땅을 차지하게 하는 믿음

2025년 12월 6일(토)

- 찬송 (215장) 다함께
- 기도 가족 중에서
- 성경 (수 14:1~15) 다함께

“12.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수 14:12)

● 묵상자료 인도자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제사장 엘르아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은 기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했습니다. 제비를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세는 요단 강 동편에서는 제비를 뽑지 않고 르우벤, 갓지파와 므낫세 1/2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고, 레위 지파에게는 거주할 여러 성읍과, 그들의 가축과 가축을 기를 목장 외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어떤 불평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공평하게 분배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다른 어떤 것보다 공평무사하게 행해야 합니다.

이때 유다 지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다가와 모세도 알고 있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6.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은 자신이 40세였을 때 모세의 명령에 따라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탐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도 동행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었죠. 다른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자신은 가나안 땅에서 본 바를 성실하게 보고했음을 밝혔습니다. 그때 모세가 자신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9.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신이 밟은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갈렙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한 약속이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신뢰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으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갈렙은 본론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 45년이 지나 85세가 되었다고 하면서 45년 전이나 지금, 여전히 건강하다고 하면서 힘이 넘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갈렙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거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청했습니다. 비록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자신이 거인 자손은 쫓아낼 수 있다고 갈렙은 확신했습니다. “12.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며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며, 믿음은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 기도 인도자

전능하신 하나님, 충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고, 온전한 믿음은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게 함을 늘 확인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다함께